

축사



오휘영 | 본회 명예회장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자연공원문화” 계간지를 4년여 만에 다시 복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자연공원협회는 70년대 초반에 사단법인 국립공원협회로 태동하여 국립공원을 포함한 한국의 자연공원 관리에 있어서 타 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에 대하여는,
 국립공원지정 후보지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및 국립공원 관리체제 연구와 해제지역의 국토 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연구 등 많은 학술조사를 통하여 국립공원의 보전 관리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오늘과 내일, 국립공원 자원 보전을 위한 생태 탐방, 21세기를 위한 자연공원의 방향 등 총 20여 회의 자연공원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연공원협회 회원과 관계공무원 및 자연공원에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공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감시자가 되어 아름다운 자연공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전국공원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공원 이용문화 증진은 물론 자연공원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연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나라에는 현재 20개 국립공원과 23개 도립공원 및 33개 군립공원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설악산국립공원이 우리 나라 최초로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으로부터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국립공원(카테고리 II)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크나큰 보람이요 자랑이라 하겠으며 우리 국민의 자연공원에 대한 큰 사랑과 관련 기관 단체의 관심이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자연공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한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자연공원을 보전 관리하는 일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가 힘을 합하여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매진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자연공원이 계속 유지될 것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영구히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잠시 중단하였던 자연공원협회의 “자연공원문화” 협회지를 복간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